

# ARCASIA의 각종 행사들

趙仁淑 / 국제 위원회 위원  
by Cho, In - Souk

1992년 ARCASIA행사는 파키스탄 펀잡(Punjab)주의 라호르市(Lahore)에서 10월23일~28일까지 열렸으며, 주요공식행사로는 제13차 이사회(Council Meeting), 제6차 교육위원회(ACAE Meeting), 제5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Asian Congress of Architects)가 있었다. 같은 기간에 영연방건축가협회 이사회(CAA Council Meeting)와 국제 건축가현맹 제4지역회의(UIA Region IV Meeting)도 열렸다.

제1회 아시아 건축상(1st Arcasia Award) 최종심사 및 참여작품 전시회 그리고 회원국 작품 전시회를 포함하여 무려 여덟가지의 행사가 있었다.

지원행사로는 공식 스폰서 회사들의 자재전시회(EXPO-92)가 있었고 과거 찬란했던 무갈왕국의 유적들을 둘러보는 라호르 시내 중요 건축물답사도 하루 있었다.

행사 기간중 환영 만찬, 잼버리대회 문화의 밤, 개회식 만찬, 회원국 친교의 밤 그리고 폐회식 만찬들이 준비되었었고 지방장관이 초대할 오찬이 있었다. 친교의 밤에 마련된 민속춤 공연에는 파키스탄 인간문화재에 상당하는 무희가 런던에서부터와 특별공연을 했다. 일부 건축인들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라호르시, 펀잡주, 나아가 전 파키스탄이 떠들석했던 행사로 대회기간 중 특별 신문(Arcasia NEWS)이 매일 발간되었고 각종 일간지 및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는 것을 보고 건축인의 사회적인 지위와 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았다.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23일(금) 등록 및 아시아건축상 최종심사, 자재전시회 개막식, 환영만찬, CAA 이사회
- 24일(토) Arcasia 이사회, ACAE 회의, CAA 이사회
- 25일(일) Arcasia 이사회, ACAE 보고, CAA 이사회, 학생잼버리 개회식, 학생작품 전시회 개최, 잼버리 대회 문화의 밤
- 26일(월) 라호르 시내 중요 건축물 답사, ACA-5 개회식 및 만찬
- 27일(화) ACA-5, 아시아 건축상 개회식, UIA 제4지역회의 친교의 밤 및 만찬
- 28일(수) ACA-5, 지방장관 저택에서 오찬, 폐회식, 시상식 및 만찬

이번 ACA-5의 주제는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Towards a New Direction in Architecture)였고 학생 잼버리의 주제는 “21세기의 토속건축”(Vernacular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였다.

학술대회(FORUM)와 건축사대회(ACA)는 격년제로 열리며 ACA가 있는 해에 학생잼버리가 열리고, 올해부터 아시아건축상이 수여된다.

1993년도엔 Arcasia Forum 7이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제는 “사라져 없어지는 아시아의 도시”(The Vanishing Asian City)이다.

대한건축사협회(KIRA)에서는 오운동 회장을 비롯한 국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본협회 총무과장 등이 공식대표로 참석했고 이사분들과 몇몇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참석했다. 대회(ACA-5) 발표자로 성균관 대학교 이상해 교수, 학생잼버리 대표로 한양대학교 3학년인 정은성, 김태훈 학생이 참석했다. 그리고 지난 8월 아시아 건축상 1차 심사에 김우성 회원이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다녀왔다.

본 협회 공식 대표단은 23일 밤에야 라호르(Lahore)에 도착하여 불과 몇 시간의 수면을 취한 후 아침부터 회의에 들어갔고 일부 회원들은 라호르에서 곧장 이슬라마바드로 향했다가 ACA 참석을 위해 이틀 후 합류했다.

김지덕 위원장과 이정근 부위원장은 이사회에, 조인숙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참석했고 이남식 총무과장이 진행 및 기타사항을 챙겨주었다. 협회의 직원이 함께 가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차후에도 이렇게 협회의 담당직원이 꼭 가야 제반업무에 연결이 잘 될 것 같다. 파키스탄은 회교국가라 달력의 휴일이 금요일이었고 토요일부터가 그 주의 시작인 셈이었다.

특기할 사항은 김지덕위원장께서 ARCASIA 회장단 부회장(Deputy Chairman)의 한사람으로 추대되었고, 아시아 건축상 최종 후보작에 김석철회원의 작품과 류춘수회원의 작품이 올라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는데 안타깝게도 금메달을 받지는 못했다.

ARCASIA 행사 참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협회로서 그리고 그 협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들이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전 회원의 일이므로 충실한 보고서를 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번 보고서의 구성은

- 1) 전반적인 역사적 전망 및 주요안건, 아시아건축상 ARCASIA 선언문 - 김지덕 위원장,
- 2) '13차 이사회 참석기' - 이정근 부위원장,
- 3) '5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 참관기' - 이상해 교수,
- 4) '6차 교육위원회 회의 참석' - 조인숙 위원,
- 5) '제4차 아시아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를 다녀와서' - 정은성, 김태훈 학생,
- 6) 파키스탄 여행기로 되어 전체적인 소개를 조인숙 위원이 맡았다.

해마다 겪어야 할 일이므로 몇가지 국제기구의 회원협회로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을 제안한다.

첫째는 협회내에 미래의 건축사가 될 현재의 학생들에게 관심 기울일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기구가 있어야겠다는 점이다.

둘째는 한국건축전의 주제와 시기를 ARCASIA 대회와 관련 지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회원작품전시회나 학생잼버리대회 그리고 ACA의 주제와 본협회 전시회 주제가 다르므로 작품전시회에 출품을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셋째는 공식대회 참석자에 관한 사항으로 대회 개막전 적어도 하루정도 사전현지에 도착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있어야 준비사항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다. 모국어로 회의를 해도 긴장이 되는데 외국어로 발표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메모하고 하는데 너무 고단하면 안된다. 게다가 사전에 외교(?)를 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건축사들과 교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대회 폐막후 곧 바로 귀국해야 하므로. 그리고 회의 참석용 자료를 발표자들이 영문으로 만들고 돌아와서 보고서 쓰고 하는데에 대한 적당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협회 회원으로서 봉사하는 일이지만 회의 전후에 기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